KIDI

07/10/08

해 외 보 험 동 향

◈ 북미

- 테러보험법 개정안 미하원 통과
-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증가 문제
- 미국 보험사의 신용점수 활용 논란

◈ 유럽

- 유럽의 보험브로커 SPB사, NICE 시스템 도입
- 영국, 기후변화 대응기구 ClimateWise 런칭
- EU, 자동차보험 연계 텔레매틱스 시장 거대 성장 전망

◈ 일본

- 방카슈랑스 12월 완전 허용에 생협은 반대, 은행은 찬성
- 대형사들 2007년도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실적 감소
- 일본우정지주회사 공식 출범, 300조엔 자산의 초거대 금융그룹 탄생

◈ 중국

- 중국 사회보장제도 기본골격 완성
- 중국 보험산업 10년 장기'황금기' 진입
- 신화생명(新華人壽), 아직 끝나지 않은 권력쟁탈전쟁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surance Research Center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테러보험법 개정안 미하원 통과

o 2002년 제정되어 2007년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테러보험법(Terror Risk Insurance Act)의 연장안이 312대 110으로 미하원을 통과함.

- 테러보험법은 1000억 달러의 정부기금을 바탕으로 테러로 인한 5000만 달러가 넘는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됨.
- 개정내용에는 자국민에 의한 테러에 대한 보상, 단체생명보험 제공, 핵 및 생화학 테러에 대한 보상 등이 추가됨.

o 법안 개정에 대해 보험사와 건설사들은 반기고 있으나 백악관은 반대 입장을 취함.

- 테러보험법이 없을 경우 건설사들의 거대 개발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테러보험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보험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은 정부지출에 대한 이슈에서 비롯되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정적자의 확대를 우려함.

o 이와 관련하여 미국 최대 보험중개회사인 AON은 테러보험법 개정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함.

- 테러보험법의 연장이 없다면 민간 보험사들은 거대 테러 리스크에 제공되는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고,
- 동 법의 존립이 불확실해지면, 테러보험의 가격변동성과 보상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테러보험법의 개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테러보험의 유효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The New York Times 9/19 외)

□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증가 문제

o 보험미가입자 옹호단체인 Families USA는 2006, 2007년 기간 중 65세 이하 인구의 1/3 이상이 부분기간 또는 전기간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려 8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건강보험을 충분히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2006년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숫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국가 의료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상원의원 Max Baucus는 “9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기초건강보험 부족으로 지난 2년간 질병과 상해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함.

o Families USA의 1999, 2000년 기간의 연구에 비해 보험미가입자는 17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의 증가인 것으로 보임.

-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수치에 의하면 2006년 건강보험미가입자는 4700만 명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년 중 전 기간에 걸쳐 미가입 상태인 사람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임.
- Families USA는 그들의 결과가 부분기간동안 보험 미가입자였던 사람들도 포함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정값이라고 주장

o 건강보험 미가입 인구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순으로 많았으며 풀타임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06, 2007년 기간 중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는 캘리포니아에서 1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41%에 달하는 숫자임. 또한 텍사스는 930만 명으로 2위를 기록
- 이 들 중 70%는 풀타임 근로자였으며 50%는 2006, 2007년 기간 중 9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미가입자가 풀타임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빈곤층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봉급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함.

(LA times 9/21 외)

□ 미국 보험사의 신용점수 활용 논란

o 10월 2일 보험사의 신용기반 보험점수(Credit-Based Insurance Scores)활용 증가에 의한 소비자 영향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

- 신용기반 보험점수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보험금 청구빈도와 보험금 크기 등의 예측에 활용됨.
- 의회의 조사감독 소위원회 의장인 Melvin L. Watt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이하 FTC)에서 발간한 “신용기반 보험점수 : 자동차보험 소비자에의 영향” 이라는 보고서가 청문회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

o FTC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신용점수가 보험금 산출에 있어 효과적인 예측치이며, 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정확히 측정함으로서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고 밝힘.

- 그러나 실제 적용결과 많은 수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낮은 신용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그들의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하원의원 Luise Gutierrez는 “FTC의 보고서가 소수자(라틴, 아프리카 아메리칸)에 대한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공평성에 관련된 애초의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며 신용기반 보험점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

o 이에 대해 미국보험협회(AIA) 회장인 Marc Racicot은 신용기반 보험점수가 리스크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예측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

-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활용은 보험사가 개개인의 신용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더욱 정확히 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
- 또한 FTC의 보고서는 오히려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불공정한 적용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을 반박하고 있으며 신용기반 보험점수에는 개인의 인종, 민족, 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함.

(Insurance Journal 10/2 외)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유럽의 보험 브로커 SPB, NICE 시스템 도입

o 유럽의 선도 보험브로커인 SPB는 프랑스 Le Harve의 본사와 관리 센터에 NICE 시스템*의 작동 실행을 완료함.

* NICE 시스템은 상호작용 솔루션과 부가가치 서비스의 리딩 프로바이더로, 일반기업과 공공부문에 포괄적 수행관리와 멀티미디어 컨텐츠 상에서 수행되는 상호작용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며, 금융산업에서는 레코딩과 분석적 응용프로그램에 있어 마켓리더임

o NICE 시스템의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SPB의 350개 중계센터는 고객과 대리인간의 음성대화와 영상활동을 100% 기록 가능해짐으로써, 이를 통해 양질의 모니터링, 대리인 교육 등에서 통찰력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또한, 빠른 속도의 정보공시 및 클레임 처리과정시 논쟁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함.

o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유럽내 많은 유럽계 자회사를 거느린 SPB는 자국내에서 연간 5백만건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계약자는 천만명 이상으로,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음.

o 동사의 최고 기술경영자인 Bruno Hinfray는 SPB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을 요구하며, NICE의 계약과정시 기록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진보된 솔루션을 통해 대리인을 지도할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계약과정시 정보는 음성단서를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나 잘못된 클레임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클레임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설명함.

(www.insurancenewsnet.com, 9/25)

□ 영국, 날씨변화 대응기구 ClimateWise 런칭

o 영국 보험자협회는 지구 온난화 등 날씨 변화 도전에 대응하고 날씨친화적 소비자태도 유발을 위한 선두적 기구로 ClimateWise(www.climatewise.org.uk)를 9월 13일 창설함.

o ClimateWise principles는 날씨변화에 대한 대응책 제시를 위해 글로벌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브로커, 로이드에 의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보험영업이 가능해 질 것임.

- ClimateWise principles는 ABI(영국보험자협회)와 영국왕실의 BEP(Business and the Environment Programme)과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일부 대형보험회사와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9개월간 연구한 결과임.

o 영국왕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탄생한 ClimateWise는 AIG, Allianz, AXA, Lloyd's of London, Munich Re 등 16개 보험업 회사가 지원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으며, ClimateWise의 창설 목적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위험분석을 선도 : 날씨 및 거대재해 패턴 예측, 위험변화에 맞춘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개선, 위험평가를 위한 신기법 개발, 포럼을 통해 학계, 사회단체, 각종 기업과 정부에 연구결과를 공유
- 공공정책 수립 계발 : 날씨변화 대응수요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 지원, 지구배출물 감소 목표 설정작업 지원, 주요 기후관련 재해발생시 긴급서비스단체 지원
- 고객에 날씨 위험을 알리고 위험수준 측정 툴 등 각종 지원제공
- 날씨변화를 투자전략으로 전환 : 기후변화와 회사의 성과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동 정보를 투자결정과정으로 전환, 투자전략을 고객에 전달
- 상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촉진시켜, 사업내 환경적 영향을 감소
- 연구보고서의 주기적 제공

(www.independent.co.uk, 9/14)

□ EU, 자동차보험 연계 텔레매틱스 시장 거대 성장 전망

o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유럽내 시장규모가 201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Frost & Sullivan의 텔레매틱스 연계 보험시스템 관련 유럽시장의 전략분석에 따르면, 동 시장의 하드웨어(단말기 및 시스템) 수익은 2007년 250만 € 에서 2015년에는 약 4억 8천만 €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텔레매틱스는 운송수단에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특히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켜 차량사고, 도난감지, 운전경로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줌.

o 이는 주로 2010년 시행 예정인 eCall** 텔레매틱스 의무장착 규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시장의 전반적 성장 등에 따른 결과이며, Norwich Union사의 PAYD(pay-as-you-drive; 주행거리별 보험료차등) 방식의 상품은 유럽에서 처음 시판됨.

  ** eCall(emergency call)은 EU지역 어디에서나 자동차사고 발생시 신속구조를 위해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차량내 설치한 블랙박스를 통해 무선으로 에어백전개와 임팩트 센서 정보를 전송하고 GPS가 지역 긴급구조센터에 연계하는 시스템임.

o EC의 eCall 의무장착 법안에 따른 2010년 9월 모든 신규차량의 eCall 시스템 장착의무화 및 PAYD 상품도입과 맞물려, 텔레매틱스에 연계한 보험상품의 성공여부는 회사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텔레매틱스 용도를 1개의 장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

o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경로와 속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고 빈도가 비교적 낮은 단거리주행 운전자 및 저연령대 운전자를 타겟으로 보험료 절감 등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임.

(www.businesswire.com, 9/18)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방카슈랑스 12월 완전 허용에 생협은 반대, 은행은 찬성

o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관)는 10월 3일 금년 12월에 완전 개방되는 제4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 및 학자 등 14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

- 생명보험협회는 “이 상태로 제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하게 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
- 손해보험대리점협회는 “은행의 압력성 판매가 존재한다며”, 강하게 반대
- 전국은행협회 등은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 된다”라고 예정대로의 제4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을 요구했으며 금융심의회에서는 “소비자 민원처리 등에 대한 책임분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o 한편, 자민당은 같은 날 열린 합동회의에서 생명보험협회 등 4개 단체를 초청하여 의견 청취

- 회의 후, 타나카 카즈노리 재무금융부 위원장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라고 발언해 신중한 입장을 취함.

(Yomiuri On-Line 10/3)

□ 대형사들 2007년도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실적 감소

o 일본에서 영업중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2007년도 상반기(4~9월) 영업실적 가집계에 의하면 손해보험재팬과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을 제외한 4개 손보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

- 손보사들의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정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일본 보험업계는 분석
- 특히, 수입보험료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6개 손보사 모두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차 판매의 침체가 자동차보험 판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토쿄해상은 "자동차 판매의 환경 악화로 개인과 법인형 자동차보험 양쪽 모두 판매가 저조하여" 향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o 이에 따라 토쿄(東京)해상, 니치도(日動)화재보험, 아이오이손해보험, 니혼코아(日本興亞)손해 보험, 닛세이동화(日生同和)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

- 토쿄해상과 니혼코아손보는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로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영향으로 제3보험을 포함한 상해보험의 판매가 침체
- 한편,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손해보험재팬과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은 자동차보험의 판매실적이 양호하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로 금융청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수입보험료 감소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
- 미츠이스미토모의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회사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실적을 높이는 데 전사적인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힘.
- 한편, 기업형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특종보험은 토쿄해상을 제외한 5개 손보사의 수입보험료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보험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

(Fuji Sankei Business 10/5)

□ 일본우정지주회사 공식 출범, 300조엔 자산의 초거대 금융그룹 탄생

o 일본의 우정사업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현재의 일본우정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일본우정 지주회사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

- 지주회사의 산하에 은행, 보험, 우체국회사, 우편사업회사의 4개 회사가 각각 자회사로 분사
- 일본우정지주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338조엔이며, 이중 은행과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합칠 경우 약 300조엔에 이름.
- 총자산 규모로 일본 최대의 금융그룹이 되며 세계적인 거대 금융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것임.
- 일본우정지주회사는 일본정부가 100% 출자하고, 산하에 은행, 간이보험 생명보험, 우편사업, 우체국 4개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o 일본정부의 우정사업 민영화를 위하여 2017년 9월까지 10년간 이행 지속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정부의 지분비율을 1/3까지 줄인다는 계획

- 은행과 보험회사는 빠르면 2010년도에 주식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우정은 완전 민영화 후에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30% 이상 유지되며, 우편사업회사와 우체국회사도 계열회사로 존속
- 그러나, 은행과 간이보험생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는 별도로 각각 2사를 상장시킨 후 늦어도 2017년까지는 100% 민영화할 계획
- 자산규모로는 우정그룹의 은행이 222조엔, 간이보험생명이 112조엔에 이르며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미츠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총자산이 약 187조엔으로 우정그룹의 금융2사가 자산규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됨.

o 일본우정은 2011년도 그룹 순이익 목표를 5870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의 이익이 3040억엔, 간이보험생명이 1300억엔으로 전망

(Reuters 10/1)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사회보장제도 기본골격 완성

o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그 기본 골격이 완성된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지원을 늘려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지역적으로 크게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2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도시의 경우 양로(연금), 의료, 실업, 공상(산재), 생육(육아) 등 5대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고 최저 생활보장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양로보험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형 합작의료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o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 시행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입원이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자금능력이 강화되면서 사회보장 수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5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연 평균 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수입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말 현재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각각 1.88억 명, 1.57억 명, 1.12억 명, 1.03억 명, 0.65억 명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2,241개 도시와 1,509개 농촌지역 주민들이 최저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고, 5,400만 명의 농민이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가입자로부터 거수한 사회보험기금 수입액은 총 8,626억 위안, 총 지출은 6,472억 위안이며 2006년말 기금 누적잔액은8,239억 위안임.

(중국신문망, 10/3)

□ 중국 보험산업 10년 장기‘황금기’ 진입

o 중국 보험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황금기를 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생명(中國人壽), 핑안보험(平安保險)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험회사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음.

o 2002년 57개에 불과하던 중국 내 생/손보 보험회사 수는 2007년 6월 말 현재 113개로 늘었고, 보험그룹 8개, 재보험회사 6개, 자산관리공사 9개 등으로 5년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음.

o 또한 지난 2004년 이후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지역제한, 서비스 대상 제한 등이 철폐되면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로 지점망을 확대하고 있는 외자보험회사의 발빠른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중국 국내, 외자 보험회사의 몸집불리기는 향후 중국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o 보험산업의 생존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최근 금리인상에 대한 반응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금리인상으로 신계약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기존 계약의 해약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은 재빨리 재테크형 보험상품을 시장에 내 놓음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함.

- 금리변동이라는 태풍이 강하게 불어왔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냄으로써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임.

o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지금까지는 준비단계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발전은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 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것임.

(금융시보, 9/29)

□ **신화생명(新華人壽), 아직 끝나지 않은 권력쟁탈전쟁**

o 한때 중국 생명보험시장 빅 4로 불리기도 한 신화생명(新華人壽)이 지난 1년여 동안의 경영권 분쟁으로 경쟁에서 서서히 도태되고 있음.

o 일부에서는 꽌궈량(關國亮) 등 구 경영자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관련기관(공안국 혹은 국무원 직속 금융감독기관을 지칭하는 듯)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2006년 9월, 신화생명 지분을 매입한 바오깡그룹(保鋼集團), 취리히보험 등이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기존 경영진을 일괄 퇴진시켰는데, 새 주주들은 위법적 요소가 있는 외국주주지분,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회장직을 맡고 있던 꽌궈량(關國亮)의 날개를 꺾어 놓았던 것임.
- 2007년 9월 27일 바오깡그룹과 취리히보험은 보감위에 이사선임과 꽌궈량(關國亮)의 법률책임을 논하기 위한 특별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신화생명 주식은 바오깡그룹, 취리히 등 이른바 '반 꽌궈량(關國亮) 진영'이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꽌궈량(關國亮) 약 30%, 베이야그룹(北亞集團)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동결 처분이 내려진 나머지 19%는 꽌궈량(關國亮) 우호지분으로 분류됨.

o 신화생명은 꽌궈량(關國亮) 사태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회계심사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등 회사운영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었고 불법으로 사용된 자산과 주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 더딘 상태로, 이에 보감위와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건의 연내 종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재경잡지, 10/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9.21(금)	07.9.28(금)	07.10.5(금)	전주대비
금리 (%)	美 10년국채	4.71	4.62	4.59	4.64	+0.05
	英 10년국채	4.73	5.09	5.01	4.95	-0.06
	日 10년국채	1.68	1.68	1.68	1.70	+0.02
주가	美 DJIA	12,463.15	13,820.19	13,895.63	14,066.01	+1.23%
	美 Nasdaq	2,415.29	2,671.22	2,701.50	2,780.32	+2.92%
	英 FTSE	6,240.90	6,456.70	6,466.80	6,595.80	+1.99%
	獨 DAX	6,596.92	7,794.43	7,861.51	8,002.18	+1.79%
	佛 CAC40	5,541.76	5,700.65	5,715.69	5,843.24	+2.23%
	日 Nikkei225	17,225.83	16,312.61	16,785.69	17,065.04	+1.66%
	中 상해종합	2,675.47	5,454.67	5,552.30	5,552.30	0.00%
	대만 가권	7,823.72	9,105.28	9,476.52	9,623.88	+1.56%
	홍콩 항셍	19,964.72	25,843.78	27,142.47	27,831.52	+2.54%
환율	엔/달러	118.90	114.66	115.56	116.46	+0.90
	달러/유로	1.3148	1.4074	1.4151	1.4139	-0.0012
	위안/달러	7.8135	7.5140	7.5145	7.5060	-0.0085